

2016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심포지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회칙이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주는 함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정 성 환 프란치스코 신부



목 차

Caritas의 어원적 정의

교회의 본질이며 기본 직무로서 Caritas

3.1 성경과 교회사 안에 드러난 Caritas

3.1.1 구약성경의 가르침

3.1.2 복음서의 가르침

3.1.3 초기교회의 Caritas

3.2 교회론적 고찰

3.2.1 제

Caritas의 실제

맺음말



2. Cariras의 어원적 정의

Caritas

- 1) Carus(라/값진, 사랑스러운, 가치있는)에서 파생
- 2) 소중함, 높이 평가함, 주의 깊은 사랑의 광의의 의미
- 3) 희랍 성경 Agape를 번역한 용어로 사용

Agape

- 1) 사랑이신 하느님의 본질 자체 (1요한 4,8)
- 2) 인간구원을 위해 JX 안에서 이 사랑을 세상에 주셨다(1요한 4,9; 에페 5,2)
- 3) J께서는 섬기는 사랑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요 계명으로 가르침
- 4) 사람도 이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데,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 (로마 12, 4-8)

오늘날 Caritas

- 1)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의미
- 2) 각 개인의 그리스도교적 이웃사랑을 의미
- 3) 구조적으로 조직된 교회의 사랑 행위를 의미

따라서,

- Caritas는 JX께서 행하시고, 신약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의 고유한 행동
- 성경은 자주 diakonia(봉사)라는 단어를 사용
- Diakonia는 Caritas의 의미를 내포하여 ‘사랑의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짐.
- 그리스도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특징짓는 기본자세를 나타내며, 교회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나타냄
- Diakonia는 사회적 자선행위 안에 그리스도교적 애덕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며 많은 점에서 Caritas의 동의어

교회의 본질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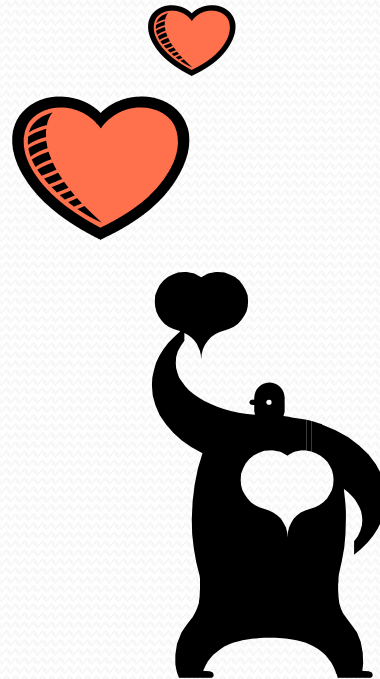
03 기본 직무로서의 Caritas



3.1 성경과 교회사 안에 드러난 Caritas

3.1.1 구약성경의 가르침

- 1)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에게
가난이와 힘없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
- 2) 율법의 제정은 채무의 탕감(레위 25,13)과
안식년과 희년의 노예석방(탈출 21,2)등 사회복지의 이상적인 모습
- 3) 아모스, 미타, 이사야 예언자 :
이기적이며 반사회적으로 대하는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을 질타
(아모스 2, 6-8; 미카 2,1-11; 이사5,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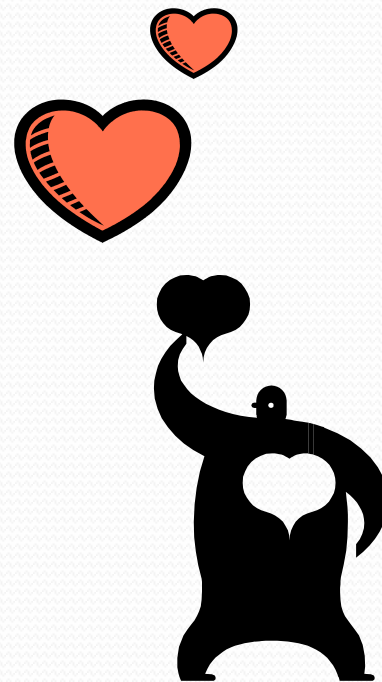


4)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에 대한 당신 백성의 자비를 요청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레위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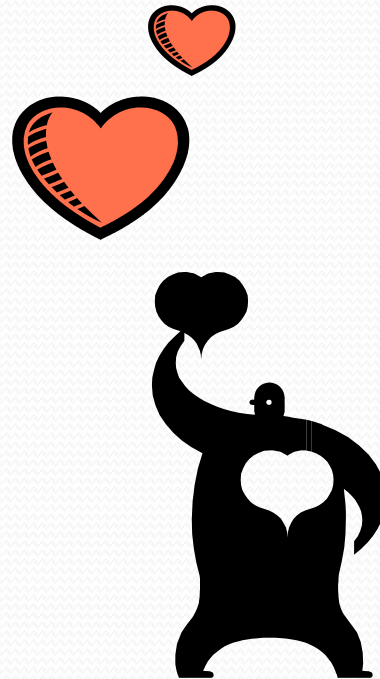
- 이 의무는 실천적인 이웃사랑으로 사람을 돌보는 개인 뿐만 아니라
백성의 왕들과 권력가들에게도 해당됨

- 통치자들은 그들의 첫번째 임무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복지차원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시편 72,2-4,12-14)



3.1.2 복음서의 가르침

- 1) 복음서의 예수는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심.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인간”
- 2) 하느님 아버지와의 내적 일치를 통해
인간에게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요구하심(마태 22,33-40).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종국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음(마태 15,31-46)
- 3) “새로운 계명”은 형제에게 희생과 봉사와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는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
(요한13,14이하; 34이하;15,12이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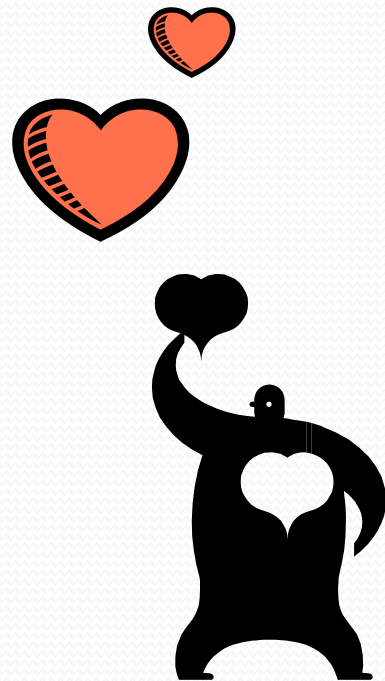


4) 바오로와 요한 사도의 문헌에서는

이웃사랑 및 형제애를 통한 일치된 아가 폐-사랑의 실현이 강조됨

5) 신약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서로 일치하는 가르침은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도움은 개별 신앙인이든 전체 공동체에게든
완전한 삶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것



3.1.3 초기교회의 Caritas

1) 사도행전 안의 성령강림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교 교회가 본질적으로 간직해온 세 가지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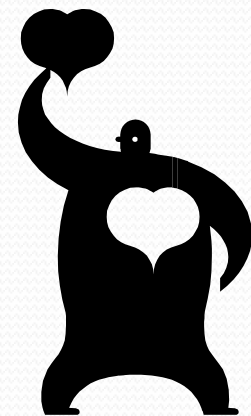
“하느님 말씀의 선포(Kerygma-Martyria)”, “성사거행(Leitourgia)”,
“사랑의 섬김(Caritas-Diakonia)

2) 초기 교회공동체는 이미 일찍부터 조직된 이웃사랑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었음

-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는”
-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자들을 임명했었고”
- “무의탁 과부들을 정기적으로 돌보았으며”
- “가난한 교회들을 모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왔음”

3)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교회공동체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는 보편적 사랑실천으로 확장됨



3.1.4 교회를 통해 본 Caritas

1) 초기 교부시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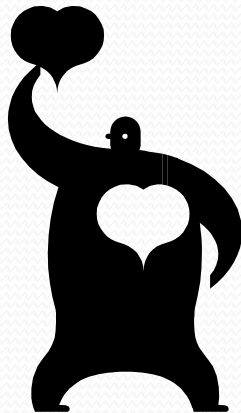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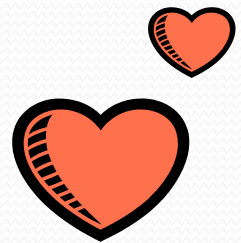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티우스 주교가 Tralles공동체에 보낸 편지:
'사랑실천'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본개념 의식

2) 사도 후 시대 :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교회 직무에 있어서 부제의 직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짐.

오늘날 복지적인 도움을 주는 조직적인 그물망의 책임을 맡음

3) 2C 말 : Caritas에 대한 교회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

모든 신앙인에게 맡겨진 Caritas에 대한 의식이 사제직을 중심으로 흘러감
전례적인 차원을 더 높게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Caritas는 교회의 본질적 차원에서 부수적인 활동으로 밀려남



4) 4C 초 : Constantinus대제 이후 교회공동체의 Caritas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됨.

수도회는 애덕봉사직의 주역을 맡게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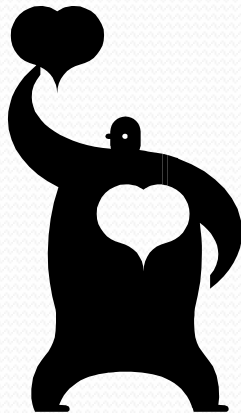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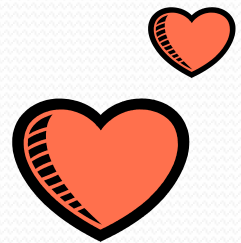
사도직 단체들에 의한 자선행위도 늘어남

5) 트리엔트 공의회 : 주교의 직무 안에 “교회 내에서의 빈민구제활동의 책임자”로 규정하였으나, Caritas의 기본 설립에는 미치지 못함

6) 19C : 독일에서 산업화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제들과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자선단체 생겨나고,
19C 말 독일Caritas 협회 탄생

7) 20C : 독일 Caritas 100주년을 즈음하여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종교적인 연합회와 활동까지를 포함함으로써 신학적인 해명이 필요하게 됨.

8) 2005년 교황 베네딕토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회칙 발표



회칙이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주는 함의

1. 가톨릭사회복지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다지는 핵심교리 정립
(정체성 확립)
2. 가톨릭사회복지 실천원리와 행동강령의 준거의 틀을 마련
(사회교리와의 접목)
3. 가톨릭사회복지의 인류학적 관점 제시(인간에 대한 이해)
4. 가톨릭사회복지의 실천의 고유성 제시(전문성과 마음의 양성)
5. 복지국가 안에서의 가톨릭사회복지의 역할 제시
(협력, 옹호, 구조의 변화를 위한 정책활동 등)